

완전한 임플란트 원한다면, 이런 치과를 찾아라!

기사입력 2012-06-20 11:25 최종수정 2012-06-20 11:29



[이송이 기자] 임플란트가 대중화 시대를 열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임플란트 시술건수는 한해 약 50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이 같은 수치는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도 상위권의 수준이라고 한다. 임플란트 도입 15년 만에 이루어낸 결과이다.

임플란트가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임플란트는 기능적인 면이나 심미적인 면이 자연 치아와 거의 같을 정도로 기능이 뛰어나고 수명 또한 반영구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플란트는 의외로 부작용이 생기는 시술방법이기도 하다. 시술 후에 감각이상이나 턱뼈가 약해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재수술은 시술 자체도 쉽지 않으며 첫 시술보다 훨씬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관련 상담 건수는 2008년도에 487건이었지만 2011년도에는 1262건으로 급증했다.

인공치아이식술인 임플란트는 인공치아 또는 제3의 치아라고 불릴 정도로 신뢰도가 높은 치아이식 방법이다. 임플란트는 치아의 결손이 있는 부위나 치아를 뽑은 자리의 턱뼈에 골이식, 골신장술 등의 수술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심어주는 방법이다. 임플란트 치료의 목적은 치아가 손실되거나 상실

되었을 때, 치아의 기능, 형태적인 심미성, 저작의 편리함, 정확한 발음, 전체적인 구강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에 있다

때문에 임플란트를 받을 치과를 선정할 경우에는 가격에만 치중하기보다 신뢰할 수 있는 치과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패를 줄이고 안정적인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임플란트를 받을 치과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상경험이 많은 의료진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효율적인 문제해결과 치과지식의 공유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다.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에는 최소한 절개를 하고 통증도 최소화 하는 '최소절개 최소통증'이 필요하다. 저통마취 시스템으로 통증을 거의 느끼지 않고 레이저시술로 최소부위만 절개하여 시술하는 치과가 통증을 최소화 할 수 있어서 좋다.

일명 '물방울 레이저 시술'을 하게 되면 출혈과 통증을 줄이고 안정성 높은 시술은 물론 부작용을 최소화 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밖에 '임플란트 전용 수술실'이 있다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치아와 턱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3D입체 CT촬영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 기기는 X선이나 엑스레이보다 3천배 이상의 정확성 및 정밀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3차원 입체영상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시술부위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위험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플란트 실패의 주요 원인은 임플란트 식립 시 치조골 내부의 복잡한 환경을 육안으로 볼 수 없어 계획했던 이상적인 위치에 식립 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밖에도 체내의 거부 반응이나 수술 후 환자가 심한 운동이나 음주, 흡연을 했을 경우 주로 발생한다.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치의학 박사)은 “임플란트 시술은 정교하면서도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시술방법입니다. 치료 부위의 상태에 따라 시술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의 경험이 많은 의료진의 선택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라고 전한다.

임플란트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아가 서로 맞물리는 힘인 치아 좌우의 교합력이 중요하다고 한다. 사람마다 치아 좌우의 씹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 힘의 균형을 맞춰 주어야 음식도 잘 씹을 수 있고 전체 치아가 고르게 운동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명도 길어질 수 있다.

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life@wstarnews.com

▶ **“환절기 실종사건!” 이제는 섬머룩을 준비할 때**

▶ **5호 태풍-탈림, 4호 태풍-구출 복상 “제주도 피해 얼마나?”**

▶ **★들의 파격적인 시상식 패션 일상복으로 입기**

▶ **디아블로3 환불 발표에도 게임 유저들 반응 '시큰둥'... 왜?**

▶ **[스타일 FLY] '훈남, 훈녀'로 만들어 주는 야구장 패션**

Copyright © 한국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etc&oid=015&aid=0002708553>
